수계 서원, 포살 통해 지속되길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9월 1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동국대 '2025 영캠프(Young Camp)' 수계식 참가신청 접수가 시작 단 2분 만에 매진됐다고 한다. 올해가 2회째인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계를 받는 행위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수계식에서는 대체로 계목(戒目)을 설하고, 계를 받는 이가 계를 잘 지니고 지키겠다고 서원하는 다짐의 징표로 연비(燃臂)를 한다. 오늘날 연비는 대개 줄기 향에 불을 붙여 팔에 대는 정도지만, 예전 스님들의 연비는 밀초 액체에 담가 응고한 삼베 가닥을 'ㄴ'자 형으로 꺾어 세운 심지에 불을 붙여 살을 태웠다. 출가 의지를 다지는 징표로 작동했다. 연비를 통해 몸의 업장을 녹인다는 의미이자, 수계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수계의 핵심은 계를 받는 계사의 초청과 계의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화상아사리가 계목을 일러 주고, 계행의 실천을 일러 주는 교수아사리와 갈마아사리 스님을 비롯해 일곱 분의 증명 법사의 참석으로 계단이 완성된다.

속담에 '중[스님]이 혼자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 것은 삼사칠증의 스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사칠증은 붓다 당시 최소한의 승가 구성원의 숫자에서 나온다. 열 명의 스님이 있는 승가 집단만이 계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수계는 과거 정리·새 삶 의지 표현
출가 의지 다지며 업장 녹이는 연비
포살, 계 점검·불자의 길 실천 다짐

었다. 변방에서 열 명의 수행자가 되지 못해 수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붓다께서는 다섯 명이 수행하는 계에서도 수계를 해도 좋다고 허락하시게 된다. 수계식의 최소 조건은 이렇게 수계단이 꾸려지면서 시작된다.

다음은 계목이다. 먼저 삼귀계를 받는다. 첫째는 붓다를 믿고 의지처로 삼고 따르겠다는 것으로, 붓다 외의 다른 삿된 스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서원한다.

둘째는 붓다의 가르침을 가치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것을 서원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일체는 무상하고 일체에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일체는 고통이라는 세 가지 법인이나 일체는 고통 속에 있고, 그 고통은 다 원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며, 고통이 사라진 세계가 있고,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 바르게 길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붓다의 제자인 상가(스님)를 믿고 따르겠다고 서원한다. 이렇게 삼귀계를 받은 다음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괴롭히지 않고, 남의 것을 갖지 않으며, 삿된 이성 관계를 맺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술 등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 등 오계를 받아지닌다.

사실 수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매월 초하루 보름의 포살이라고 할 수 있다. 포살은 계를 잘 지켰는지를 점검하는 날인데, 오늘날은 포살하는 법회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사찰이나 단체 단위로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서 포살하는 신행이 활발히 펼쳐지면 좋겠다.

공양을 올리고 계사와 수계자가 계목을 선후창으로 제창하며 불자의 길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포살을 통해 수계의 서원이 지속되면 바르게 불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정의로운 민주 공동체 구현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지난달 〈불교평론〉 창간 26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 다녀왔다. 주제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종교'다. 각 종교의 여러 학자의 발표를 들으며 전쟁의 발생과 종교의 역할에 대해 황망하고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십자군 전쟁의 허구성과 탐욕, 가톨릭과 개신교의 30년 전쟁의 비극, 태평양 전쟁과 일본 불교의 태도, 한국전쟁과 그리스도교의 관계 등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오늘날 현존하는 종교들은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에 비해 100분의 1도 안 되는 2000년 안팎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동안 종교 사상과 종교적 헌신으로 편협한 이기심을 초월해 고귀한 가치와 진리를 추구한 사례도 많다. 그러나 역사는 그 어떤 세력보다 종교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를 어쩌랴.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니.

학술 심포지엄 자리에서 전쟁 억제와 평화 지향을 위한 종교의 역할 논의도 많이 제기됐다. 필자는 여기에서 전쟁 발발의 원인이 '보통 사람'들의 비도덕성이나 무도덕성에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소위 '잘난 사람들(집단)'의 탐욕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잘난 사람들은 대개 '잘못된 사회 구조'를 만들고 이를 보통 사람에게 최면시키면서 그들의 탐욕을 충족한다. 중

종교 이름으로 목숨 많이 잃어
전쟁 발발은 집단의 탐욕서 비롯
'보통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세의 많은 전쟁은 종교와 권력, 그리고 이권이 개입된 잘난 사람들의 싸움이었다. 그 싸움에 희생된 것은 착한 보통 사람이다. 많은 인류학자는 호모사피엔스가 여러 면에서 우수한 네안데르탈인을 누르고 현생 인류가 된 것은 그들이 지닌 '상호 부조'의 도덕적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라인홀트 니버의 저서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는 개인은 도덕적인데 왜 비도덕적 사회가 되는지 그 원인을 밝히며 '사회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윤리는 개인의 도덕성 못지않게 사회 구조와 기능의 도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 윤리는 사회 이념·제도, 정책이 사회의 도덕적 비전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따진다.

이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잘난 사람과 잘난 집단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사회 윤리적 과제가 나온다. 사회 윤리의 핵심 기초는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도 중요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떤 곳에서도 완전한 형태로 실현된 적이 없으며 불안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이념'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성패의 핵심은 바로 '보통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깨어 있으면 정의로운 민주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로운 민주 공동체 구현은 전쟁 방지의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주의는 불교와 매우 친화력이 높다. 〈유행경〉에 있는 칠불쇠법(七不衰法)은 붓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불교와 정치의 관계가 펼쳐진 긴 역사 속에서 불교의 많은 치부가 숨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의로운 민주 공동체 구현은 한국불교의 짐이자 비전이다.

社 說

'세상을 위한 불교' 나선 50년
'미래를 향한 불교' 100년 되길

올해는 동국제강 창업주이자 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 대원(大圓) 장경호 거사의 입적 50주기이자, 진흥원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다. 9월 8일 서울 다보빌딩 법당에서 열린 추모 및 기념 법회는 '세상을 위한 불교'를 발원한 대원 거사의 뜻을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대원 거사는 평생을 '산업보국'을 위해 정진했고, 일생의 결실을 고스란히 '불교 진흥'을 위해 희사했다. 일찍이 불법에 귀의한 그는 '사업에 종사해 크게 성공하고 모든 것은 대중을 위해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1945년 국내 최초의 민간 철강회사인 동국제강을 설립하는 대업을 이뤘다.

쌀 한 톨, 휴지 한 장도 함부로 쓰지 않는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도 불교와 사회를 위해서는 기꺼이 재산을 환원한 모습은 재가 불자가 실천할 수 있는 보살행의 전범(典範)을 보여 준다.

대원 거사의 숭고한 원력으로 설립된 대한불교진흥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설립 초기에는 종단과 단체의 주요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했고, 불교방송 설립과 운영으로 불교 정신을 전파하는 대중매체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에는 문화 콘텐츠 개발, 청년 불자 육성, 국제 포교, 명상 프로그램 확산, 디지털 전법 강화 등 직접 사업을 통해 불교적 가치와 사상을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행보는 불교의 가르침이 신앙의 차원을 넘어 삶의 철학이자 공동체의 문화로 확장됨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출가자 감소, 신도 고령화, 종교 무관심이라는 삼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진흥원은 1975년 설립 취지문에서 "우리 불교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어려운 국가적 현실을 직시하고 노력의 정법이념을 드높이 내걸어 국민의 정신생활의 지표가 되어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이는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유효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기념 법회에서 "불교가 다시 살아나면 자비심이 회복되고 보살의 삶을 따르며 삼업이 청정해져 육바라밀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듯, 불교는 지금 여기의 땅을 밟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진흥원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발전적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불교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 캠페인 확대와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제시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포교·전법 방식의 다양화와 디지털 전환 및 AI를 활용한 포교 방안 제시, 국제 포교 활동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교가 시대와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고통을 치유하는 실질적 해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조만유(心造萬有),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대원 거사의 열반송처럼 불교 중흥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올해가 한국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겠다는 대원 거사의 큰 원력을 불자들의 마음에 심어 그 뜻을 구현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9월 17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9월 1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9월 1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9월 1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